



# THE ZAYTUN

# زهيتون



Republic Of Korea Zaytun Division

www.zaytun.mil.kr

July, 8, 2006



한국전통공연인 '남사당'놀이 중 무동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The Namsadang troupe members making a Human Pyramid

## The Namsadang Troupe Show with the Kurdish People

The Namsadang Troupe from Korea held a lively two-hour performance for the Zaytun troops and local guests on June 13. In attendance were Ministers of Culture and Education from the KRG, forty professors and students from the Salahaddin University, and other various regional officials.

The performance opened with gilnori, an act that announces the beginning of the performance. It was followed by an exciting tightrope walking performance, a various drum performance, and sal-poo-ri by the renowned Korean traditional dance performer Hong Youn-seon that showcased the beauty of the Korean Culture. It closed with sa-mool-no-ri and poong-mool-no-ri, exciting mixture of various traditional instruments.

During the breaks, the Zaytun troop club teams Woon-wo-poong-rae and Pink Panther added to the excitement. The troops also cheered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participating in 2006 World Cup, with the local guests joining in shouting Dae-han-min-gook, O-pil-seung Korea and other slogans.

The exciting traditional performance from the Namsadang Troupe was an event that brought a taste of faraway

home to the troops, and also a respite from their long deployment.

Falak Addin Kakai, the KRG Minister of Culture, said after the performance that he is very grateful that the Zaytun division held yet another chance for a mutual cultural exchange for the Kurdish people. "Experiencing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today gave me a chance to better understand both Korea and the Zaytun," he said.



## 남사당놀이, 쿠르드인과의 한마당 열어

자이툰 부대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해 이라크 아르빌을 방문한 남사당놀이 보존회가 지난 13일, 현지에서 장병들과 KRG(쿠르드 지역정부) 문화부·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 살라아딘 대학교 교수 및 학생 4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신명나는 남사당놀이 공연을 펼쳤다.

본격적인 남사당놀이에 앞서 이를 알리는 '길놀이'로 시작된 이날 공연은 영화 '왕의 남자'로 많이 알려진 '줄타기'와 박진감 넘치는 '모듬북', 한국의 미를 선보이는 전통무용가 홍윤선 씨의 '살풀이 춤', 그리고 우리 전통악기의 다양한 선율을 멋들어지게 보여준 '사물놀이' 및 '풍물놀이'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또한, 장병들이 평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탄탄하게 실력을 다진 타고 팀 '운우풍뢰'와 보컬 팀 '핑크팬더'의 공연이 행사의 흥을 더했으며, 공연 도중에는 2006 독일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한국대표팀의 필승을 기원하는 열띤 응원전을 펼치기도 했으며, 공연에 참석한 이라크 현지인들도 자이툰 부대 장병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오~필승 코리아"를 연호했다.

흥겨운 남사당놀이의 전통가락은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역만리 고국의 숨결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파병생활을 재충전 할 수 기회가 됐다.

공연을 관람한 팔라 카딘 카카이 KRG 문화부 장관은 "그동안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에서 다양한 평화재건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늘과 같은 상호 교류를 통해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해 왔었다"며 "특히 오늘은 한국 전통음악을 접함으로써 한국과 자이툰 부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공연을 관람한 팔라 카딘 카카이 KRG 문화부 장관은 "그동안 자이툰 부대는 아르빌에서 다양한 평화재건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오늘과 같은 상호 교류를 통해 하나되는 자리를 마련해 왔었다"며 "특히 오늘은 한국 전통음악을 접함으로써 한국과 자이툰 부대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A Letter from Fawzia Husean Aziz

“Tears blur my vision with the fact that I must say good bye to my friends, the Zaytun troops. You all did splendid jobs here in Irbil and we remain truly grateful.”

Fawzia Husean Aziz, the Principal of Hasarok Elementary School, sent a letter at the end of March to the troops of the 11th brigade, who are going back to Korea.

On her letter, she said she was very impressed with the brigade's

hope for a better future.”

She said she was most impressed with the troops truly caring about their work even in the most adverse conditions.

“The Kurdish people will always remember the Zaytun troops as our brothers and sisters,” she said. “They planted the seed of trust and love in our heart.”

The Kurdish people, a victim of much oppression throughout the history, are said to have a rather

이순간, 눈물이 나의 눈을 흐리게 한다 ‘이만 안녕’이라는 말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아쉽다. 자이툰 장병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라크 아르빌의 하사로크 초등학교 화우지아 후세인 아지즈(43, 여) 교장이 교대병력과 교체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자이툰 부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5월말 보내왔다.

보건소 건립, 마을회관 신축, 축구장 건설 등 자이툰 부대의 재건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한국군의 모습에 특히 감명을 받았다고 한다.

“쿠르드인들은 자이툰 부대 장병을 형제와 자매로 기릴 것이다. 자이툰 부대가 우리에게 해 준 가장 중요한 것은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뢰와 사랑의 집을 우리들 마음속에 지어줬다는 점이다.”

아픔의 역사를 간직한 터라 쿠르드족은 외부에 폐쇄적이고 다소 개인주의적이라고 한다. 그런 아르빌 주민들이 한국군을 위해서는 집대문뿐



Fawzia Husean Aziz

### Thank you Zaytun!

Principal Aziz's letter to the 11th Brigade of the Zaytun Division appeared in Weekly Dong-a, a Korean weekly magazine.



화우지아 후세인 아지즈

### 자이툰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본 원고는 하사로크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귀국하는 11민사여단 교대 병력에게 보내는 감사의 글이며, 한국의 '주간동아'지에 게재된 글입니다.

work in building clinics, town halls, athletic fields, and other facilities, which she said changed her perspective of the military as a whole.

“The Korean troops were not the messenger of murder and destruction that I thought all military was alike,” she noted on her letter. “They gave their hearts to bring peace and reconstruction to us, with respect to our culture and tradition. They truly gave us a dream and a

closed culture. However, Principal Aziz's letter showed that the Kurdish people truly opened up to the Korean troops.

She closed her letter saying that the Kurdish people would remember the Zaytun for the rest of their lives and tell their children and grandchildren about the work the Zaytun did for the Kurdish people. “We all hope and pray that we shall meet again, whether here in Kurdistan or in Korea.”

지켜보면서 그는 ‘군인은 살인과 파괴의 존재일 뿐’이라는 평소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한국군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랑과 진실로 우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며,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해왔어요. 한국군은 아르빌에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준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도 한마디 불평 없이 자신의 일처럼 아르빌 사람들을

아니라 마음의 문까지 활짝 열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한국군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며, 한국군이 이 곳 아르빌에서 쿠르드 민족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를 후손에게 반드시 전해 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기원한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쿠르드 또는 저 먼 한국에서 또다시 만나기를...”

## Introduction of Korea

### Nam-sa-dang

In late Joseon period, namsadangs were wandering troupes of entertainers from the lower classes. Its origin is largely unknown; historical records are few, and even those are written for and by the ruling class, who looked at namsadang as a group behind many immoral acts.

Namsadang at first was an exclusively female group of performers who danced and sang at festivals around the country, but it eventually became an exclusively male group. The prefix nam, meaning male, was added to change its name from sadang to namsadang.

The namsadang performers were made up of the lowest classes in the old Korean caste system, but their

performance was a big hit in the period during which entertainment was hard to find. Because of their outcast status, the performers forged close alliance with Buddhist temples around the country, often using them as their assembly points. Various namsadang troupes performed actively around the country.

As a form of entertainment for and by the lower classes, namsadang provides a valuable insight to how they looked at the late Joseon period and its upper classes. Currently, namsadang is considered as the origin of the modern folk culture, and was designated as an important intangible cultural asset by the Ministry of Culture.

### 남사당

조선 후기에 자연발생적인 민중놀이 집단으로 '남사당패'라고도 하며, 규모가 큰 일종의 유랑예인 집단이다. 남사당의 연원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매우 빈약하여 《고려사》, 《해동역사》, 《문헌통고》 등에 기록된 단편적인 것 밖에 없다. 위의 기록도 지배층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남사당을, 풍속을 해치는 패륜집단으로 보았다.

처음에는 사당패라고 하여 여자들이 떼를 지어 다니며 술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등의 공연을 했지만, 조선 후기에는 남자들만의 사당패가 출현함으로써 이를 남사당이라 하였다.

이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계급으로 광대·장인·상인보다도 못한

집단이었지만 특별히 불거리가 없는 민중들로부터 환영받았다. 사회에서 격리되어 자기들만의 남색사회(男色社會)를 이루고 유랑생활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절과 관원을 맺고 절을 집결지로 삼기도 하였다. 알려진 남사당패의 은거지는 경기도 안성·진위, 경상남도 진양·남해, 전라남도 구례·강진, 황해도 은율·송화 등 지이다.

남사당놀이는 서민층에서 발생하여 서민들을 위해 공연된 놀이로,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성을 놀이를 통해서 비판하며 풀고, 민중의식을 일깨우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민족예술의 바탕이 되어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Zaytun Campaign

### In the name of 'Zaytun'

To this date, 10,000 Korean soldiers who have left their country and loving family to serve in Iraq have been praised and extolled by the local residents and coalition alike, and have become a companion of Iraqis bringing a brighter future to Iraq.

Even at this moment, over 3,000 troops, as representatives of Korea,

will continue our foot steps until we fulfill our dream, the miracle of Zaytun which is to bloom the flowers of peace and reconstruction Iraq.

Soldiers of the Zaytun Division will do their best to remain in your hearts as an everlasting friend and a symbol of hope, and we will honor our words in the name of 'Zaytun'.

### 자이툰의 이름으로

지금까지 10,000여명의 자이툰 장병은 고국과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이곳 이라크 아르빌에 파병되어 현지인들의 칭송과 동맹군들의 극찬을 받으며 이라크인들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3000여명의 자이툰 장병은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

표로서 이라크 평화재건이라는 나무에 꽃이 활짝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우리의 꿈, 자이툰의 또다른 기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들의 힘찬 발걸음을 계속할 것입니다.

자이툰 장병은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영원한 친구이자 희망으로 기억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Korea-Kurdish Friendship Festival

An unforgettable festival to celebrate Korea and Kurdish cultures and their friendship was held by the 11th brigade on March 22. The event was attended by the Zaytun Commanding General Hwang and 700 Zaytun troops, the Iraqi Army 1st Brigade Commander, the KRG Ministers of Culture and Education, the Regional Police Chief, the Zerbani Commander, and other local guests that numbered 200.

During the event, a play about the Turkish contingent to the United Nation Forces that fought during the Korean War was especially warmly received by the audience. The play noted the fact that 70% of the Turkish troop was made up of the Kurdish people, and showed the historic spirit o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ultures. At the part where Korean and Kurdish soldiers celebrate a victory after a battle by singing military songs, the audience added to the drama by joining in.

Before the play, twenty students from various villages received the Division's scholarship. The scholarship fund included \$600 from



자이툰 부대원들이 현지인들과 초피댄스를 추며 우정을 나누고 있다.  
Zaytun soldiers doing choppi dance with local guests.

the soldiers from Communication Support Company, 11th Brigade, who donated their 1st place prize money from the Zaytun Division Movie Festival to the local children.

## 영원히 잊지 못할 한쿠르드 우정의 행사 열려

제르바니(민병대) 사령관 등 700여 명의 자이툰 장병과 200여 명의 아르빌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과 쿠르드간 상호 문화공연과 어울림 행사를 통해 돈독한 우의를 다지는 영원히 잊지 못할 감동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6.25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터키군의 70%가 쿠르드인이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쿠르드간의 역사적인 만남과 미래의 발전상을 연극으로 선보여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용인 김량장리 전투에서 승리한 한국군과 쿠르드인이 함께 군가를 부르는 장면에서는 관람객들이 군가를 따라 부르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한편 부대는 행사에 앞서 민사작전 대상 마을 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장학금 중 600\$는 11 민사여단 통신지원대 장병들이 자이툰 사단 개최 디지털 영상 콘테스트에서 우수작품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금으로 현지 어린이들을 위해 훈쾌히 장학금으로 기탁하여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다.

자이툰부대 예하 11여단 장병들은 지난 5월 22일 자이툰 사단장 황중선 소장을 비롯하여 IA 1여단장, KRG 문화부 장관, 교육부 장관, 경찰청장,

## 월드컵의 열기는 우리모두 하나!!!

월드컵 태극전사들이 토고를 꺾고 사기충천한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전을 앞둔 현지시간 6월 18일 22시부터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브루스크 공원에서 '사핀 카나비' 이라크 쿠르디스탄 축구협회장을 비롯한 지역주민 500여 명이 한데 모여 한국의 선전을 기원하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국이 토고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 한국과 축구를 좋아하는 이라크 아르빌 지역에도 월드컵 축구 붐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우호국 한국이 본선 2차전인 프랑스와의 경기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으로 한국을 응원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남녀노소가 공원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 자이툰 부대에서 전달해 준 태극기를 흔들며 쿠리 쿠리!, 대~한민국, 오! 필승 코리아 구호를 외쳤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자이툰 장병들은 이라크 아르빌 지역주민과 함께 열띤 응원을 펼치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야간시간으로 인해 참석하여 함께 응원할 수는 없으나 주둔지에서 TV로 시청하며 응원의 합성을 더했다.



브루스크 공원에서 월드컵을 시청하며 한국팀을 응원하고 있는 아르빌 주민들

## The World Cup Brings Us Together

His team was about to play its second match of the 2006 World Cup after beating Togo, and Safin Kanabi, the President of Iraqi Kurdistan Football Association, could hardly contain his excitement. He and 500 Irbil residents, who had gathered in the Brusks Park at the late hour of June 18, were there to cheer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versus France.

After the Korean team beat Togo in its first match, old and young, male and female football-loving residents of

Irbil caught on the World Cup fever. To cheer for Korea, they have turned out in force well into the night, and watched the game from a huge screen. Waving the Korean flag that were provided by the Zaytun Division, they shouted Dad-han-min-geook and other famous Korean slogans.

Soldiers from the Zaytun could not join the residents due to the late hour, but joined them in spirit, watching the game inside the base and cheering for their national team.



Irbil residents cheering for the Korean national team at the Brusks Park.

### ■ Kowraban School Ground Breaking Ceremony

The Ground Breaking Ceremony for Kowraban School was held on June 10. The event, presided by the Zaytun Commanding General, was attended by the KRG Minister of Education, the Irbil Governor, other local officials and visitors from Korea.

### ■ Hasarok Clinic Completion Ceremony

Hasarok Clinic Completion Ceremony was held on March 31. The Zaytun has now built seven clinics in the region, with three of them at Irbil Province and four at Dahuk Province.

### ■ '카우라반학교' 준공식 가져

지난 10일, 자이툰 사단장 주관으로 KRG 교육부 장관, 아르빌 주지사 및 관계국장과 지역주민, 한국 현지 방문단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우라반 학교 준공식이 열렸다.

### ■ 하사록 보건소 준공식 가져

지난 5월 31일 부대는 5월 31(화) 하사록 마을에서 보건소 준공식을 가졌다. 지금까지 자이툰 사단은 아르빌주 3개소, 다후크주 4개소 등 총 7개소의 보건소를 신축하였다.

## Zaytun Roundup

### ■ The 4th Reconstruction Support Meeting

The Fourth Reconstruction Support Meeting for June was held on June 4 at the Irbil Government Complex. The meeting, presided by the chief of Zaytun CIMIC, was attended by various directors and engineers from the Irbil government.

### ■ Bringing Light to Cataract Patients

Two Kurdish brothers, suffering impaired vision from cataract, are going to Korea thanks to the 12th brigade for surgery and treatment.

### ■ 제4차 재건지원 실무협의회 개최

자이툰 부대는 지난 4일, 아르빌 주청사에서 사단 민사협조본부 본부장 주관으로 KRG와 아르빌 주정부 관련 국장, 선임 엔지니어 등이 참석한 가운데 6월 제 4차 재건지원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 ■ 백내장 어린이에게 희망의 빛을

백내장으로 인해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쿠르드 어린이가 형제가 자이툰 부대 예하 12민사여단의 주선으로 국내 의료진에 의해 수술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자 이 툰 단 신

# Friendship Festival at Salahaddin Univ. **살라아딘 대학에서 화합의 장 열려**

360 Zaytun Division troops held a cultural exhibition event at the Salahaddin University on March 28 to demonstrate the Korean culture to the local residents. The event was held at the request from Mohammad Sadik, the President of the Salahaddin University, and was attended by 2,000 students and the members of the faculty, and the KRG Ministers of Education and Sports.

The Zaytun Division has held many such events in various villages, but this was the first time such an event was held at a university. Through this event, the division hopes there would be a wider sense of understanding of the Korean culture, and the work the division has been carrying out, among the region's brightest students.

This event was held after faculty members and students from the Linguistic and the Humanities Departments of Salahaddin University paid a visit to the 11th brigade on



살라아딘 대학 총장과 함께 초피댄스를 추며 즐거워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원들  
Zaytun soldiers doing choppi dance with the President of Salahaddin Univ.

March 20 for an invitational event, and watched the troop's martial arts and sa-mool-no-ri performance. The visitors were very impressed, and asked the brigade to hold an event at the university for a bigger audience to showcase the Korean culture and demonstrate the work the Zaytun has been carrying out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gion.

자이툰부대는 지난 5월 28일, 이라크 북부에 위치한 명문 국립대학인 살라아딘 대학 요청으로 모하마드 싸딕(52세) 총장을 비롯한 교수진 및 학생 2,000여 명과 KRG 교육부장관, 체육부 장관, 자이툰 부대원 3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그린엔젤작전을 펼쳤다.

그동안 자이툰 부대는 소규모 마을 단위 민사작전을 수행해 왔지만, 살라아딘 대학처럼 이라크 미래를 이끌어갈 고급 엘리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린엔젤 작전은 아르빌 전개 이래 최초로 자이툰 부대의 활동상과 한국 문화를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이툰 부대 11민사여단이 살라아딘 대학에서 그린엔젤 작전을 펼치게 된 배경은 지난 5월 20일(토) 실시한 살라아딘 대학 부대 초청행사에 참석한 언어학부 및 인문학부 교수들이 무술공연과 사물놀이 등 자이툰 부대원들이 선보인 공연을 관람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많은 학생들이 아르빌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이툰 부대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연을 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 Bringing Hope and Dream

- Children's Day Event for Local Children -

To commemorate the Children's Day, the 12th brigade of the Zaytun Division held an event on March 31 for 220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from villages the brigade has held civil military operation, orphanages the brigade has supported, and Irbil area elementary schools.

The event was held with the goal of bringing hope and dream to the local children, and showcasing the division's various activities to improve Korea's image among them. The children took part in the photograph session, tour of the brigade's facilities and equipment, tour of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and the sports event with the Zaytun troops.

The visitors were very impressed with the high-tech military equipments, and could see their capabilities firsthand during demonstrations. At the Vocational Training Center, they could also see the example of Division's "Respect and Demonstration" motto, at the facilities for various courses that the Center holds.

The tour was followed by the Honor Guard and Taekwondo performances, and music from the Military Band. The children then took part in the



자이툰 부대원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쿠르드 어린이  
A Kurdish Child having fun with a Zaytun Soldier

sports event, at which they could have a great fun playing a two-person-three-leg sprint, a tug-of-war and other events. A photograph session was held alongside the sports event, which was warmly received by the visitors.

"We had so much fun. I hope everyday is a Children's Day," the children said, thanking the Zaytun Division for holding the event. "Koreans are always there to help us with smile on their faces, and we hope they would be here forever."

## 꿈과 희망을 나눠드립니다

- 현지 어린이 날 기념, 어린이 초청 다채로운 행사 가져 -

이라크 아르빌에서 평화재건임무를 수행 중인 자이툰 부대 12민사여단이 5월 31일 현지 어린이날(6월 1일)을 기념하여 민사작전 시행마을과 자매 결연 보육시설, 아르빌 시내 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 등 220여 명을 부대로 초청하여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북돋아주고 자이툰 부대의 활동상을 소개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기념 사진 촬영, 여단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기술 교육센터 견학, 시범행사 참관, 자이툰

부대원과 학생들이 함께하는 운동회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부대에 도착한 학생과 선생님들은 자이툰 부대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첨단 군용장비를 견학하고 장비의 성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기술교육센터에서는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교육 과정을 둘러보며 자이툰 부대의 '존중과 배려' 정신을 체험하기도 했다.

이어서 자이툰 부대원들이 준비한 의장대, 태권도, 군악 연주 시범을 관람했으며, 시범 후에는 장병들과 학생들이 함께 한 작은 운동회가 열렸는데 2인 3각 장애물 달리기, 줄다리기, 박 터트리기 등을 통해 함께 웃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운동회와 병행 실시된 이미지 사진 촬영은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행사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여 한국군 오빠, 언니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돼 정말 행복하다. 날마다 어린이 날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한국군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로 언제나 함께하기를 희망한다."며 행사 내내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었다.